

‘앨범의 비밀’은 학생 대상으로 쓴 이야기로 각자 개인들의 몸에 베어버린 낭비 습관을 낫설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앨범의 비밀’이란 이야기는 가상의 미래 속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인 형우는 엄마의 물심부름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다. 형우가 살고 있는 때는 바로 2050년. 극심한 물 부족으로 국민 당 50L라는 매우 적은 양의 물이 배급되어지고 있는 때이다. 국민들은 하루에 이 물 이상의 양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물통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형우는 매일 자신의 덩치만한 짐수레를 끌고 동사무소를 다녀온다. 형우의 엄마는 형우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잔소리를 해댄다. 잘못된 형우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형우의 행동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형우의 엄마는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빈 방에 켜져있는 전등, 사람 없는 곳에서 뱅뱅 돌아가고 있는 전기 히터, 그리고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들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모두 꽂혀있었다. 그 순간 현관에 달려있던 전기 에너지 초과 감지등에서 빨간빛이 나면서 집 안에 모든 전기에너지 공급이 중단된다. 가까스로 촛불을 찾은 엄마는 형우에게 지구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빠도 엄마를 거들여 지구본 하나를 들고 온다. 형우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에 깊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한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오겠다는 것!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엄마와 아빠의 말에 풀이 죽어서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는 데 할머니가 형우를 찾아온다. 그리고 할머니는 검은색 앨범을 건네준다. 앨범 속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벌어지는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형우는 가슴아픈 사진들을 보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다. 그리고 다음 날 형우는 깜짝 놀란다. 그가 과거 2012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형우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형우는 이제부터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널리 퍼뜨리기로 결심한다. 학교에 간 형우는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 앞장선다. 집에 돌아온 형우는 자신의 침대 위에 놓인 검은 앨범을 본다. 그 순간 형우는 고민에 빠진다. 과거에 온 후 하루만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건 없었다. 바로 미래로 돌아가기엔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알리지도 못했다. 형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앨범을 보면서 과거에 남아 사람들이 웃는 사진을 앨범에 채우리라는 다짐을 한다.